

☀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지·순·례**



- **순례기간** : 2012년 12월 11일 (화)~ 21일 (금) (10박 11일)
- **순례지역** : 인도 & 네팔
  - ①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Lumbini)**
  - ②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想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 ③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 ④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 ⑤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샬리(Vaishali)**
  - ⑥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기원정사(祇園精舍)" **스라바스티(Sravasti)**
  - ⑦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오르시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道寶階)" **산카시아(Sankasia)**
  - ⑧ "부처님 열반지" **쿠쉬나가르(Kushinagar)**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비** : 2,790,000원 (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교도가족
- **신청기간** : 2012년 9월 30일 (일)까지
-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총무부 서강 정사 ☎010-4258-1002  
 (주)원트래블 ☎1577-2279



##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법어



우리 충지중에서는 창종 초기부터 매년 상하반기 49일 동안 진호국가불사를 비롯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재난불생, 산업발전의 염원을 담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불공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지난 49일 동안 우리는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언·무연중생의 영식천도를 위한 불공에 응맹정진하여 왔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49일 불공을 원만히 회향하는 의미에서 방생법회를 마련하여 전 종도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지중은 창종 이래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종단은 나 하나만의 고통 해탈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기원하는 불공을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 방생법회는 그러한 의미를 되살리고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향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삼 및 마리를 놓아주고 기빠하는 그런 차원의 방생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 경제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살릴 수 있는 참 대승의 방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법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모든 무명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연기의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중생들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가진 사람들일수록 나누어 가지며 양보하는 속에서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행복도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방생법회는 남을 살리는 법회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방생법회를 통하여 공생공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우리 사회가 좀 더 넉넉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공덕이 널리 미치어 일체 재난이 소멸되고 부모 조상들이 극락 왕생하여 청정한 가택도량으로 거듭 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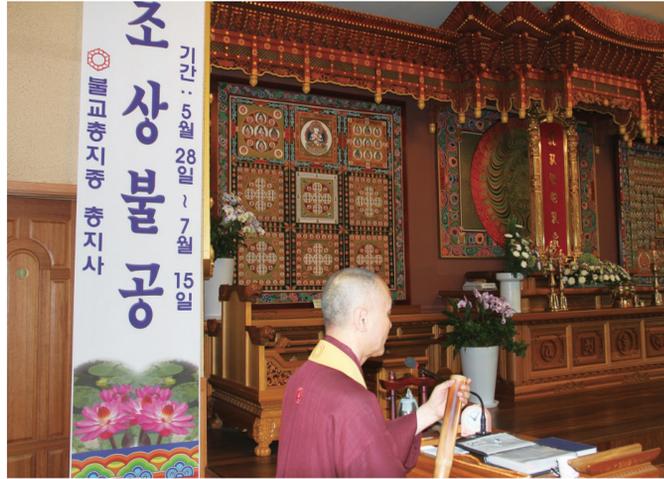
충기 41년 7월 16일  
종령 효강 합장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응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충지중 하반기 49일 불공 7월 15일 회향 7월16일 『호국안민기원대법회』 각 교구별 봉행



불교충지중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하반기 불공이 오는 7월 15일 회향한다. 지난 5월 28일부터 총본산 충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당에서 '호국안민과 조상 영식 천도를 위한 기도'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과 호국안민기원법회 법어를 통해 "육신의 고통, 경제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살릴 수 있는 참 대승의 방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법회를 통하여 이 사회의 모든 무명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며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서원을 세우기를 서원했다.

충지중의 진호국가불사(鎮護國家佛事)는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불공'이다. 그 발원

은 삼국시대부터이며 종조 원정 대성사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근거로 1975년 진호국가불사 의례와 "옴흠야호사"진언을 제정했다. 충기 20년(1991년) 당시 특정 종령은 상반기 49일 불공은 '자녀 잘되기 서원 불공', 하반기 49일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 해탈 서원불공'으로 제정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날인 7월 16일에는 각 교구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봉행된다. 호국안민과 선영에 대한 서원으로 봉행되는 이법회는 부지불식간에 지어온 과보를 소멸시키는 자기실천법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경인 교구는 충남 태안에서, 부산,경남 교구는 경남 하동, 대구,경북 교구는 각 사원별로, 충청,전라 교구는 경남 함양에서 각각 봉행할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 순례신앙의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일본 시코쿠 대회 봉행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교류회) 제33차 대회가 6월 26일 일본 시코쿠 카가와현 고토하라 선동사에서 봉행되었다. 불교충지중 총리원장 지성정사, 총무부장 인선정사, 사회부장 우인정사, 서울,경인 교구장 법등정사, 충청,전라 교구장 법우정사, 국광사 주교 안성정사, 밀인사 주교 원당 정사와 교류회 한국 측 회장 자승스님, 이사장 정산스님, 각 종단 대표 및 여성부 회원 등 110여 명이 참가했다.

6월 25일 고토산가쿠 호텔 대연회장에서 펼쳐진 일본 측 환영만찬에서 교류회 일본 측 니시요가 료고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1977년 제1회 불교문화교류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이래 올해 제33차 대회를 시코쿠(사쿠)의 진연종 선동사파의 총본산 선동사에서 봉행하게 되어 양국의 불교도들은

인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서원을 통해 한층 더 유대를 공고히 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며 대회에 참가한 한국 측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측 이사장 정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양국의 문화 전통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지혜와 자비의 토대라 자부합니다."며 교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당부했다. 이날 일본 측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불교충지중 총리원장 지성정사, 전각종 총리원장 혜정정사, 천태종 정산 스님 등 7명에게 양국 불교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6월 26일 일본 진연종 선동사류 총본산 이자 흥법대사의 탄생지 선동사에서 봉행된 본 대회는 평화기원법요식 및 공동선언



문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본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선언문에는 "순례신앙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순례지 발전방안 탐구를 위해 노력할 것과 지구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지금이야말로 양국

의 불교도는 인류의 자연환경 연관을 인류의 예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안녕을 위해 지구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등을 합의했다. <관련기사 6,7면>

일본 시코쿠=김종열 기자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이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서울·경인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충남 태안

### [부산·경남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경남 하동

### [대구·경북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각 사원별

### [충청·전라교구]

- ◆일시 : 7월 16일
- ◆장소 : 경남 함양



#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38주기 추모대재 봉행 6월 16일 구인사에서 천태종도 2만 여명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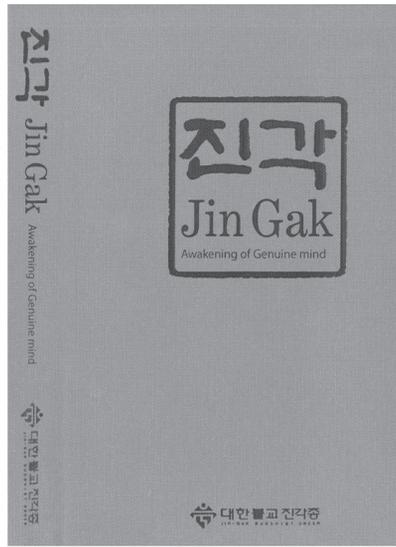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38주기 열반대재 추모법요식이 천태종 총무원장 갈수 스님의 사회와 책임노전 석승 스님의 집전으로 6월 16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열반제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과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정사와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이시종 충북도지사,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 이재원 불교방송 사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2만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께서는 고난을 구도의 바탕으로 삼아 끊임없는 정진으로 영원한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셨다."며 상월원각대조사의 치열한 구도행을 되새겼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사무총장 홍과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 근현대 민족의 암울했던

시기에 불교중흥의 원력을 세웠듯이, 2천만 불자 모두는 사회갈등을 이겨내고 불국정도 건설을 위해 대조사의 유지를 함께 실천해가자"며 대조사의 원력을 다시 모으자고 발원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강봉석 중무실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실의와 도탄에 빠진 민중을 위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셨다"며 어려운 시기에 불자들의 등불이 된 대조사의 업적을 칭송했다. 이밖에도 김학송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광호 국회의원 등도 추도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열반대재 봉화가 끝난 뒤 사부대중들은 구인사 뒤편 수리봉 적멸궁에서 적멸공재를 올렸다. 단양 구인사=김종열 기자

# 진각종 종조 법어집 『진각』 7개 국어로 출간 7월30일-8월1일 울릉도에서 2012년 회당문화축제 봉행 예정



진각종은 창종주 회당 종조 탄신 110주년을 맞아 종조법어집 『진각』을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진각』은 회당대조사의 법언인 실행론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참된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법구 120개를 선정했다. 이번 법어집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네덜어, 몽골어, 총 7개 국어로 번역해 한 책에 묶은 다언어 출판물이다. 진각종은 그동안 인도, 네팔, 중국, 스페인 등 스님들을 종단 유학생으로 선발 위탁대에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유학생들이 진각종의 문화와 실행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종조법어에 대한 접근이 시작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종조법어의 다언어 출판물 제작을 시작했다. 오는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 동안 진각종 종조 탄신인인 울릉도에서 『2012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독도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여름휴가를 맞아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독도경비대, 현지주민을 아우르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김종열 기자

# 여수 세계불교도우회(WFB) 한국대회 성황리 봉행 고승대법회 ·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중국의 개막식 불참으로 행사진행 차질



세계불교도우회 WFB 한국대회가 6월 12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식 갖고 일정에 들어갔다. 세계 3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들이 모인 이번 대회는 1990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식전 행사에서는 1000여 명의 불교연합합창단과 55명의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화음을 선보이며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 시켰다. 이어 진행된 개막식은 WFB한국대회 조직위원장 진옥 스님의 개회선언으로 LED전광판으로 구성된 대웅전이 마련되며 송광사 · 화엄사 스님들의 '산사의 새벽' 무대가 진행되었다. WFB 주제가 합창, 삼귀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의 고불님 낭독, 주제영상 상영, 환영사 및 축사 등으로 이어졌다. 불교총지중에서는 화평 중앙교육원장, 보정 법장원 연구원, 총지화 기로스승 등이 동참했다. WFB한국대회 명예대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WFB한국대회가 세계정신문화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대회가 불교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판 와나메티 세계불교도우회 본부회장은 "세계박람회와 열리고 있는 여수에서 이번 불교도우회를 열게 돼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참석한 불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개회식 직전 티벳의 참가 문제로 중국 대표단이 불참하여 대회 분위기를 흐렸다. 6월 13일에는 30여 개국 불교지도자들은 디오션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불교사상을 통한 동서양의 소통'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미국 샌디에고 대 종교와 신학 부교수, '브라이언 앙드레 빅토리아' 미국 안티옥 대학 일본연구 학 교수, '폴 데이비드 닐릭'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조은수 서울대 교수와 반카즈 모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교수 등이 논평자로 이말 학술 토론을 이어갔다. 13일 WFB행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세계고승수계대법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자 3만여명이 모여 그 열기를 더해갔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원로스님들이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3만 불자들에게 계를 내렸다. 한국의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을 비롯해 품와치라야 스님 등 태국, 프랑스 등 전세계 고승들을 3사7중으로 모시고 불자들은 참회와 정진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져, 여수를 찾은 전세계 불자들에게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알리는 박람회장이 되었다. (관련기사 5면)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종단 쇄신안 발표 사부대중 공의의 종단운영 초석 놓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1차 쇄신안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물려받지 않은 쇄신으로 사부대중 공의의 종단운영 초석을 놓겠습니다."며 쇄신안을 발표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쇄신안을 통해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산중공의를 복원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며 "교구본사 주지 및 중앙중회의원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으는 고유 선출방식을 기본으로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거공영제 실시를 통해 후보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선거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을 중앙종무기관과 교구가 부담토록 하고,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정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로 징

계를 받은 경우 징계와 별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10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단의 청정성을 회복을 위해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제정과 시행, 징계와 참회가 엄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승종 확립을 위한 기구로 '승가공통체 쇄신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정센터'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참회원' 설치를 준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승과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첫째, 출가 승려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신도는 스님들과 사찰에 대한 의도와 보살행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둘째, 사찰은 스님들의 지도로 운영하되, 경제적 관리업무는 재가 전문종무원(淨人=관리인)이 담당하고 스님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엄정한 감독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셋째, 사찰의 재정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사찰에서 형성된 정재(淨財)는 사찰 관리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엄정하게 사용한다는 것. 넷째, 종단과 사찰을 이끌고 지도할 공직 소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불교 정신에 부합되게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다섯째, 현대사회에서 출가승단이 준수할 청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모든 스님들이 화합 속에 여법히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조계종은 최근 승려 도박 파문으로 집행부 부장, 국장급 스님들이 일괄 사퇴하고, 100일간 108배 참회 정진을 하는 등 종단 안으로 부터의 자정과 쇄신을 시행중이다. 이번 발표가 공명법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불자들은 앞으로 있을 조계종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김종열 기자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6/4	10,000
개천사	무명씨	6/11	20,000
개천사	강순시	6/14	10,000
개천사	한재호	6/14	10,000
개천사	이희강	6/14	10,000
건화사	김순화	5/31	30,000
관성사	황성녀	5/30	10,000
관성사	인선	6/25	20,000
기로	해정	6/20	10,000
기로	대관	6/25	10,000
기로	대자행	6/25	10,000
기로	밀공정	6/25	10,000
기로	법수원	6/25	10,000
기로	법장화	6/25	10,000
기로	법지원	6/25	10,000
기로	불멸심	6/25	10,000
기로	사홍화	6/25	10,000
기로	상지화	6/25	10,000
기로	수증원	6/25	10,000

기로	총지화	6/25	10,000
기로	선도원	6/25	10,000
단음사	천공	6/5	4,000
단음사	법연지	6/14	10,000
덕화사	하순옥	6/18	5,000
덕화사	시정	6/25	10,000
덕화사	원만원	6/25	10,000
밀인사	정정희	5/31	5,000
백월사	진평	5/31	5,000
벽룡사	무명씨	6/4	10,000
벽룡사	무명씨	6/4	10,000
벽룡사	양정현	6/18	10,000
벽룡사	양지현	6/18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6/15	60,000
수인사	김봉기	5/29	10,000
수인사	황보기문	6/19	20,000
승천사	원봉	6/14	10,000
승천사	지선행	6/14	10,000
시법사	진여행	6/25	10,000

실지사	송우섭	6/21	5,000
우리사랑	손경옥	6/16	55
자석사	무명씨	6/11	10,000
정각사	구정희	6/19	20,000
정각사	박동휘	6/20	10,000
지인사	허선동	5/30	30,000
지인사	승효계	6/14	10,000
지인사	허성동	6/18	30,000
초록어	오현주	5/30	5,000
린이집	김초롱	5/30	5,000
	조영림	5/30	5,000
	김명순	5/30	5,000
	양미경	5/30	5,000
총지사	법등	6/13	20,000
혜정사	김경미	5/30	20,000
화음사	강순란	6/1	5,000
화음사	박옥자	6/18	10,000
흥국사	지정	6/14	20,000
	원정언	5/28	50,000

이혜원	5/30	5,000
김갑선	6/4	20,000
무명씨	6/15	10,000
김은령	6/19	30,000
원정언	6/25	20,000

## 5월26일부터 6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124회 이사회 학원 주요 현안 논의 및 지원 사항 결의



학교법인 관음학사(이사장 지성 정사)는 6월 21일 동해중학교 법인사무실에서 제12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 지성 정사의 주제로 대원정사, 인선정사, 선도원 기로스승, 강경중, 김무남 이사 및 박정선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안건은 “명륜2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경계선 정비의 건으로 현재 재개발 시행중인 학교주변 측량결과 학교 강당 건물의 일부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학교 소유의 인근 부지와 교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외에 지난 1학기 동안의 학교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 집행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동해중=법선 사무국장

# 제4회 한국전통문화 대만소개 사업 성료 총지종 통리원 신입종무원 해외불교 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는 제4회 『한국전통문화 대만 소개 사업』이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진행되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

주황, 조정아, 조영아 교무와 각 단 재가실무자 및 불교계 NGO, 언론 출판 종사 재가자 30명이 참가했다. 참가단은 6월 22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범고산사, 자재공덕회,

불광산사, 불광사 난평별원 등 주요 사찰을 방문하고 대만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5일에는 불광사에서 대만 불교 사경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문화를 대만에 소개하는 연꽃등 만들기 행사를 열어 한국 연등문화를 대만 불자들에게 알렸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가 후원해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 증대와 국제 불교계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운영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한 행사이다. 종단협의회는 오는 9월에는 중국불교수행체험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 종교법인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의원 통리원 방문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 국회의원이 6월 29일 총지종 통리원을 방문했다. 김장실의원은 지성 통리원장과 환담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제19대 국회에서 종교법인 활성화를 위한 총지종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제19대 국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불교와 전통문화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 이번 국회가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장실의원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문화체육부 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제1차관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비례

김종열 기자

#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삼사순례 포항 수인사 등 참배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회장 오석순)는 6월 6일 삼사순례를 다녀왔다. 탁상달 교감 선생님, 김재근 선생님, 송인근 선생님, 한문술 선생님, 법선 학교법인 사무국장님과 불교어머니회 회원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순례단은 경주 굴굴사, 기림사, 포항 오어사에 이어 총지종 수인사를 참배했다. 수인사 주교 지공 정사의 총지종 종지종품 소개와 사찰 장엄물 설명을 듣고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어머니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교와 총지종 사찰을 순례하기로 했다.

동해중=탁상달 교감 선생님



# 6월 18일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스님 취임식 총지종 지성통리원장 참석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6월 18일 제11대 일면 이사장 스님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운학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정사, 총무부장 인선정사,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주지 정수스님, 이석우 남양주시장, 최상균 광동고등학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 천여명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설립자 윤허스님의 원력과 건학이념을 통한 포교와 교육의 산실이다. 이날 취임한 일면 스님은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광동학원 9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불암사 회주를 맡고 있다.

남양주 광동고= 김종열 기자

신임이사장 일면스님은 취임사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비전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동학원 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 모친 49재 봉행



부산.경남 신인록 지회장 모친 박무출 보살 49재가 6월 20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되었다. 대원 정각사 주교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49재는 전국의 스승님 30여명이 참석했다. 가족대표 신인록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공에 동참해 주신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산 정각사=김병구 소장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 위드다르마는 진리의 말씀

# 올곧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2012. 7월 (통권 105호) 표지 7월의 푸르른 기상으로 시원스레 뻗은 청록의 자태.

## Contents 7. 2012

- 불교이야기, 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화령정사**
- 수행이야기, 미래는 과거보다 아름답다 **성운대사**
- [테마기획]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려이다 **본각스님**
- 마음의등불, 성인구심불구불 **대예종교 선사**
- 진언수행의길, 금강권 **법경정사**
- [기획연재] 만권거사 **원철스님**
- 빠알리경전읽기,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반복하여 조언한다.
- 만다라세상, 노을 **지정정사**
- 행보찾기, 죽의 궁 **보연전수**
- 오감만족 템플푸드, 사찰음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은주**
- 차양기숙으로, 시련을 딛고 **이정아**
- 지혜의뜨락, 아름다운 생각 **칼립지보란**
- 진리의 길,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라진다 **보정**
- 아주특별한선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달라이라마**
- 이달의경전, 해심밀경
- 발걸음따라, 비구니들의 푸른 웃음소리 **박용신**
- 디딤돌, 양고기 국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권경희**
- 생각하는 우화, 호랑이 굴에 몸을 던지다
- 함께보는불교미술, 목탁의 유래
- 산책, 초록풍물 **공재동**
- 규제와편견의안개를넘어선여성들, 윤희순 **박무정**
- 씨앗한알, 삶의 배지 위에
- 갈망의담기이야기, 스스로 자기를 아프게 하지 말아요 **원성스님**
- 간강한방상, 산에 나는 장어, '우영양궁구이'
- 우리말바루기, 진정성 | 사건

### ☆ 만다라세상

저무는 하루를 보내는  
서글픈 눈길 속에서도  
쓸쓸함보다는  
보낼 줄 아는 너그러움  
가진 자신이 늘 자신에게 행복하다고 느낀다.

- 본문 '노을' 김지수님 중에서..

###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22-047811-13-128 예)불교총지종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다르마



**화령**  
(중앙교육원장)

# 영식의 의미와 천도불공의 의미

## 천도불공으로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도리

양력 7월 15일은 하반기 49일 불공이 끝나는 날이다. 총지중에서는 음력 7월 보름 대신에 양력으로 이 날을 회향일로 정해두고 49일 동안 조상 영식천도를 위한 불공을 계속한다. 현교에서는 음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 혹은 백중이라고 하여 조상의 영가를 천도하고 부모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여 크게 재를 올리기도 한다.

총지중에서는 ‘영가(靈駕)’라는 말 대신에 영식(靈識)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불공하는 것을 ‘영식천도(靈識薦度)’한다고 하는 것이다. 원래 영가라는 말은 육체 밖에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정신적 존재를 말하며 흔히 죽은 사람의 혼백을 영가라고 한다.

원래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력을 안고 가는 주체는 인정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영식(靈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가나 영식은 또 뭔가라고 의문을 품을 것이다. 불교에서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말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근원인 아뢰야식의 형태(겉으로 드러난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가 지은 업을 떠맡아 안고 가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서 영생을 누린다는 식의 황당한 영혼관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치자. 세 살 때 죽은 누나는 세 살 때 모습을 하고서 팔십에 죽은 자기를 반겨주겠는가? 아버지는 30대에 죽어 젊은 모습을 하고 자기는 80살에 죽어 노인 모습을 하고서 가족이 재회를 한다? 조금만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혼관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우스운 발상인가를 알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의 개념은 이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아뢰야식이 우리가 지은 모든 업력을 간직한 채 새로운 연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 또 다른 생명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우리의 식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의 것을 우리는 편의상 영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러한 영식

을 천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며 누구도 이러한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영혼과 내세는 정말 있는가? 있다면 어떤 형태를 띠게 될까? 등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다. 반드시 영식은 존재하는 것이며 그 영식에 의하여 내세가 결정되고 영식이 지은 업력에 따라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우리의 업력을 보존하고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업력을 실어 나르고 있다.

업력에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천해 가는 원인은 나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성립되기 때문인데 이를 인연화합 또는 연기(緣起)라고 한다. 우리의 몸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를 바탕으로 영식이 인연에 따라 결합되어 유행화된 것이다. 지·수·화·풍의 사대 자체는 본질상 변함이 없지만 일단 유행화되면, 즉 육체의 형태를 지니게 되면 생·노·병·사의 변천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과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뢰야식, 즉, 영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음전에 떠도는 불쌍한 영식”이라고 할 때의 중음이 바로 이것이다. 이 중음전에서는 영식이 다음에 태어날 곳을 찾아 헤메고 다니는데 중유가 평소 지은 업의 무게에 따라 태어나는 모습과 태어나는 곳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이 중음전에서는 업력이 같은 중유끼리는 서로 친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악업의 중유는 악업끼리, 선업의 중유는 선업끼리 서로 끌어당긴다고 한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영식왕생뿐만 아니라 모든 유연영식의 왕생성불을 기원하는 것도 선한 영식끼리 서로 끌어당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된다.

아뢰야식에 보존된 업력은 중유를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가령 악업이 많은 중유가 미래의 출생처를 찾을 때 악업의 힘이 중유의 지혜로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착각을 일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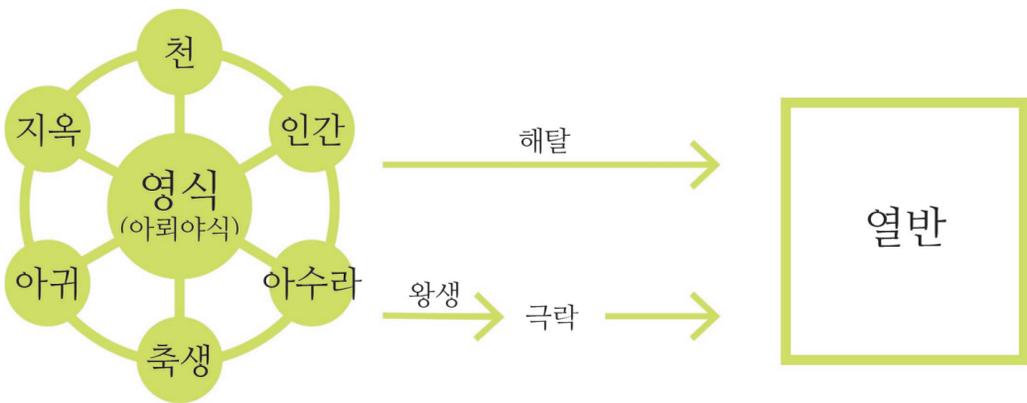
키는 다음 생을 받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7일 내지 49일이다. 물론 49일이 훨씬 지나서도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음전에 떠도는 영식도 있지만 대체로 이 기간 안에 다음 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십구제를 올려 영식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평소 자신의 몸에 대한 애착은 물론 재산과 처자권속 그리고 명예 등에 대한 애착으로 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은 영식도 이러한 애착은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있다.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중음전에 떠도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망자(亡者)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과 더불어 망자 자신의 영식도 생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영식의 애착을 제거하고 영식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천도불공을 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과 여러 불보살의 원력(願力)을 통하여 무지한 영식을 깨우쳐 살아 생전 자기에게 가졌던 부질없는 집착과 망상을 떨쳐버리고 무상한 진리를 간직하고 깨달음으로서 바른 길을 따라 왕생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에 천도 불공의 의의가 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인간을 제도하고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의 영식을 교화하여 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유상(有相)의 인간만을 생각하고 몸을 벗어 보이지 않는 무상(無相)의 영식은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사후의 영식도 오직 형태만 없을 따름이지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와 똑 같다고 한다.

한 집안에 어른이 아파 누워 계시거나 탈선한 자녀가 있으면 집안식구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듯이 선방부모나 일가친척 선대의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삼악도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고통받는 영식은 항상 이승의 가족이나 친척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비록 우리 중생의 삶이 자업자득이라 영식이 고통받는 것도 스스로 지어서 그런 것이나 우리가 지성으로 불공하고 왕생성불을 기원하면 부처님의 위신력과 불보살의 한량없는 대비심에 가지하여 영식이 천도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복업과 공덕도 한량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선방 부모가 저지른 죄업의 대부분이 자식들을 위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살아 생전에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돌아가신 뒤에도 천도불공을 통하여 극락 왕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없다.



윤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의 오온(五蘊)이 화합된 것으로 본다. 즉 우리의 몸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색은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이며 수, 상, 행, 식은 정신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5 가지가 결합하여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기 때문이다. 나고 죽고 병 들고 늙는 그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이다. 객관계의 물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고(成), 얼마간 지속되다가(住), 파괴되어(壞), 없어지는(滅)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한 가운데에는 나라고 고집할 만한 변하지 않는 실체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한 과정 속에서 잠시 나라고 생각되는 존재가 나타날 따름인데도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존재가 영원한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부리고 화를 내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의 과정에서 오직 아뢰야식만이 한 줄기

우리의 식에는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 5식(識)과 현재의 사실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의식(意識),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며 온갖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제7식인 말라식(末那識)이 있으며, 우리의 업장을 보존하여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아뢰야식(阿賴耶識)이 있다. 이 아뢰야식은 이 생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신(身)·구(口)·의(意)의 삼업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있다가 내세(來世)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아뢰야식의 작용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타의 식에 영향을 끼침으로서 현재 우리의 육체와 정신계를 활동하도록 하고, 또 살도록 유지시키면서 모든 선악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생명의 주체라는 점이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아뢰야식이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부과불교의 학설에 의하면 인간이 사망한 후 다음 생을 얻기까지의 영식을 중유(中有), 혹은 중음(中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

키게 하여 지옥과 축생, 아귀와 같은 삼악도를 극락세계와 같은 낙원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악업이 많은 중생은 스스로 달려가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곳에서 가하는 고통을 업보로 받게 되며, 반대로 선업을 많이 닦은 영식은 지옥과 극락 등 미래의 세계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태어나도록 그 선업이 안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악업은 무지를 나타내고 선업은 지혜를 나타내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수행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누군가가 사망한 직후에 49일간 천도불공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중유에 머무는 영식이 불공공덕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지혜를 더 얻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려는 의도이다. 보통 영식이 중유에 머무는 기간은 49일 정도라고 한다.

죽어서 선업이나 악업 가운데 어느 한쪽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지옥 또는 천상계에 즉시 가서 출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선업과 악업이 혼재되어 아뢰야식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지상 설법

참회는 바른 수행의 시작



도현(운천사 주교)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은 동물과 달리 언어와 도구 그리고 불을 사용한다고 대답하거나, 혹은 인간은 이성을 앞세워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감정적 조절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명을 창조하고 후대에게 교육을 통해서 傳承(전승)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인 모습 외에 思考(사고)적인 면에서 보이는 차이점입니다. 이렇듯 인간과 동물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IQ가 비교적 높은 유인원이나 개들은 잘 훈련하면 주인 혹은 훈련자와 일정부분 소통이 가능하여 주인의 명령을 아주 잘 따르는 경우를 매스컴이나 혹은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깊은 복종심으로 주인을 위협에서 구하거나 사람과 사람이 보다 더 친밀한 감정적 교류를 나누어 때때로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본능적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결과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떠한가? 본능적으로 살아온 동물에게 용서란 없습니까. 같은 무리나 혹은 다른 종의 무리의 먹이를 뺏어 먹고 다음날 “어제 너의 먹이를 뺏아 먹어서 미안해” 하면서 오늘 사냥한 먹이를 내밀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동물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할 때 티벳에 남아 달라이라마의 탈출을 도와주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온갖 고초를 겪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세월동안 변치 않았던 그 스님을 만난 달라이라마는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 스님은 “나 자신이 중국인을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용서 중에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고통(고)을 벗어나서 해탈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는 결코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은혜는 평생으로 버리지 말고 讐怨(수원)은 일시라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종조님의 말씀에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천은 원수가 된 상대를 먼저 용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 수원을 버린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큰 수행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와 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직접적인 용서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애처롭게 여기는 것을 자비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용서하는 것을 참회라 합니다. 자비의 실천과 참회는 불교의 수행 덕목 중에 가장 강조하는 실천덕목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수행은 砂上樓閣(사상누각)과 같아서 그 수행은 절대로 전진이 있을 수 없으며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탈을 위한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은 더더욱 좋은 일입니다.” 어느 시인이 용서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들을 용서하고 지금 바로 용서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는 맑고 밝아지고 아울러 편안해 질 것입니다.

여수 세계불교도우회(WFB) 참관기

『정치적 갈등을 넘어 화합의 장이 되기를 서원』



보정(법장원 연구원)

여수에서 열리는 제26회 WFB(세계불교도우회) 대회에 다녀왔다. 대회조직위로부터 환경포럼 사회와 학술포럼 조직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1950년에 설립된 WFB는 불교계 국제대회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인만큼 내가 맡은 일 외에도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환경포럼은 개회식 하루전인 11일에 먼저 개최되었다.

도법스님과 태국의 잔타세토 스님이 발표자였다. 도법스님은 한국 불교환경운동을 대표하는 분이고, 잔타세토 스님은 태국의 아쇼케 공동체를 대표해서 온 분이다. 아쇼케 공동체는 총지중에서 주관해 온 국제제가불교지도자대회에 두 번 참석한 적이 있는 수위다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아직 WFB 참석자들이 모두 도착하기 전이라 발표장 청중은 많지 않았으나, 한국과 태국에서 직접 환경 운동을 이끌고 있는 두 스님은 주제발표뿐 아니라 각기 동영상과 사진들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북방불교와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두 스님의 실천적인 모습과 함께 두 스님 모두 농업에서 환경문제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포럼이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청중들 모두 진지하게 경청하였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12일에는 여수 시내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가하였다. 개회식장은 수백 명의 대회 참석자와 수천 명의 청중들로 꽉 차 있었다.

개회식장 밖은 자원봉사자와 체육관 밖에서 있을 점심식 및 공연을 보기 위한 수많은 불자들 및 일반 관람객으로 자못 축제분위기가 나고 있었다. 국내외 불교 지도자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와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지역 정치인들의 축하 메시지 등이 이어졌으며, 의식과 축하 공연 등으로 개회식은 자못 성대하였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대회는 티벳 대표단과 중국 대표단 사이의 불상사로 파행이 일어난 상태였다. 그런데 개회식이 있는 이날 오전에 개최된 WFB 대표자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의 거부로 티벳 대표단이 회의장에서 쫓겨 나왔으며, 개회식에서는 미리 와 있었던 티벳 대표단을 보고 중국대표단이 호텔로

돌아가 버렸다. 13일 오전에는 학술포럼에 참가하였다. 첫 발표자는 샌디에이고 대학 종교학의 카르마 록세 소모 박사였다. 사카디타 세계여성불자협회의 공동창립자이기도 한 그는 “현대문화 속에서의 불교”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종교가 된 불교가 향후 서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아시아의 종교가 아닌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티베트, 일본, 미얀마, 베트남의 각 불교 종파들이 자신들만의 불교적 해석이 옳다는 좁은 시각을 버려야 하며 대규모 불사보다는 경제, 환경, 어린이 등을 돕는 사회참여가 우선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는 브라이언 빅토리아 Brian Daizen Victoria 교수였다. 그는 안티옥대학(Antioch University) 일본

연구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국제불교연구 교류협회와 혁신적인 불교지(레바논 불교학회) 멤버이기도 하다. 그가 1997년에 출간한 『전쟁과 신』은 일본 불교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협조한 것을 폭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 및 서구 불교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 불교계의 공식적인 반성을 발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는 “불교가 현대세계에 미친 어두운 일면에서 배우다-스즈키의 일본 제국 군대 장교들에게 한 연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일본의 선을 서구에 널리 전파한 스즈키 스님이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동안 서구에 전파된 일본불교의 신화를 해체하고, 반성적인 평가를 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오하이오 감리교 신학대학, 종교 및 종교간 관계학 스노우턴 석좌 교수인 폴 데이 넘리치 교수가 발표를 했다.

그의 주제는 “미국 역사 및 문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이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불교 신자는 4백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상이 대중문화와 종교문화는 물론 정신건강과 과학, 윤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영향력의 구체적인 면면을 살폈는데, 수적인 면에서는 불교도는 이슬람보다 적지만 문화적 영향 면에서는 이슬람을 능가한다고 결론 내렸다.

포럼이 끝날 후 포럼 참가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중국대표단과 티벳대표단 갈등

문제를 화제로 삼았다. 통상 학술 포럼 후에는 발표자간에 포럼에서 오갔던 말들을 다시 되새기곤 하지만 이번 WFB의 대화 소재는 중국 측의 태도와 이에 대해 불교인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모두들 중국 측의 처사는 도저히 불교도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WFB도 이런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는 불교계의 큰 숙제이다. 불교인들로서는 명분상으로 보면 다람살라를 옹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불교계는 오래 전부터 달라이라마를 초청하고 싶어 했지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한국 정부 탓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한국 불교계가 현실과 타협한 것이다.

한국 불교인들이 달라이라마 초청에 정말로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동안 달라이라마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항의 한번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회 한국 본부에서 달라이라마의 최측근인 삼동 린포제와 페마 친조르 중앙티베트 행정부 종교문화성 장관을 초청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WFB 본부 측에서 지나치게 중국 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 중국 측의 개회식 참가 거부를 문제삼기는 커녕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회장과 사무총장이 태국으로 돌아가버렸다. 중국측이 대회를 거부한 것과 행동 통일을 한 셈이다.

세계불교도우회회는 불교인들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대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대회는 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불교인들은 중국과 티베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국제적 관계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for 'Gangnam Guryimchook Children's Home'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featuring photos of children and staff, and text describing the facility's goals: 'Healthy children + Caring children + Well-mannered children' (건강한 어린이 + 지혜로운 어린이 + 예의바른 어린이). It also mentions 'Best facilities for the best' (최고의 보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uddhist Welfare Foundation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 일본 밀교의 본고장 공해대사의 탄신지 시코쿠 카가와현을 가다

##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불교총지종 대표단 참가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일본 시코쿠 카가와현 고토하라 선통사에서 봉행되었다. 불교총지종은 통리원장 지성정사, 총무부장 인선정사, 사회부장 우인정사, 서울 경인 교구장 범등정사, 충청.전라 교구장 범우정사, 국광사 주교 안성정사, 밀인사 주교 원당정사, 기로스승 우승정사 대표로 참가하였다. 일본 불교 역사상 국가로부터 대사(大師)호칭을 받은 스님은 총 24명 뿐이다. 일본 진언종의 개창조인 공해(空海)대사도 그중의 한 분이다. 엔기(延喜) 21년 서기 921년에 흥법대사(弘法大師) 칭호를 받는다. 일본에서는 대사하면 흥법대사를 지칭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숭상한다. 선통사는 공해대사가 태어난 곳이다. 공해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대사의 아버지가 자신의 장원을 사원으로 건립한 곳이다. 공해대사는 아버지의 호인 요시미치(善通)를 따 사원의 이름을 선통사(善通寺)라 부른다. 이곳은 동서로 나누어 동원은 본전이 있고, 서원에는 탄생원이 자리한다. 동원에는 금당 중심으로 상행당, 오중탑(5층 목탑), 명신오사, 삼제왕묘가 있다. 어영당, 성영전, 지장당, 호마당, 표서원, 본방 등은 서원에 자리한다. 시코쿠에는 88 사찰 순례 코스가 있다. 공해대사의 흥법의 길을 따라 88개의 사찰을 차례로 순례하는 것이다. 많은 불자들의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성불의 기

원으로 구도의 길을 걷는다. 선통사는 그 75번째 사찰이다. 순례자들은 모두가 흰 옷에 삿갓과 지팡이를 손에 든 모습이다. 흰옷은 일본 전통 수의다. 즉 망자의 옷이다. 순례길에 죽음을 각오하고 다닌다는 뜻이다. 순례자들의 행렬에는 동행이인(同行二人)이라는 네글자가 쓰여있다. 순례는 혼자 아닌 공해대사와 같이 한다는 뜻이다. 각 순례지 사찰에 도착하면 본당에 참배하고 남경소라는 사무소에서 순례를 확인하는 도장을 받는다. 그렇게 걸어서 순례하면 4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요즘은 버스를 타고 단체로 순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통사에서 봉행된 한일불교교류회 본대회는 일본 진언종 밀교의식으로 범회를 열었다. 가시하라 젠쵸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의식은 우리 밀교에서는 볼 수 없는 의식들이었다. 하지만 진언 염송의 의례와 수인 등은 같았다. 특히 염주는 총지종의 염주와 그 모양이 일치했다. 다만 양 방향으로 염주를 나누는 것이 차이이다. 지성 통리원장은 학술대회가 끝나고, 선통사 주지 가시하라 젠쵸 스님과 환담을 나누고, 양국의 밀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우의를 다졌다. 또한 한국인 김보심 스님이 주지로 있는 대일사 방문에서는 양국의 밀교종단인 총지종, 진각종, 일본 진언종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밀법 흥포의 의지를 다졌다.

총지종 대표단은 마지막 날, 교토(京都)를 따로 방문하여 일본 진언종 지산과 총본산 지적원을 방문했다. 이곳에 소장한 일본 중요문화재 양계 만다리를 견학하기 위해서다. 주지스님의 환대를 받으며 대일여래가 모셔진 본전에 참배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공개 하지 않는 만다리를 친견했다. 지적원이 소장한 만다리는 세부 묘사까지 정확하고, 그 색상이 곱기로 유명하다. 본존을 중심으로 양계 만다리를 봉안하는 방식은 같았다. 국보로 지정된 장 벽화와 일본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명승정원을 둘러보았다. 지적원은 지산과 3,000여 사찰을 총괄하는 본산으로 현재에도 많은 승려와 재가자들의 수행도장으로 자리한다. 지적원으로부터 약 15분 정도 떨어진 일본 정토종 총본산 지은원으로 향했다. 우리의 일주문에 해당하는 삼문은 일본 국보로 지정된 유명한 문화재다. 규모가 사람을 압도한다. 지은원 범무계장(우리의 교부 소임) 스님의 안내로 대종루, 어조, 경장, 법연상인어당을 둘러 보았다. 특히 스님들의 공간인 법연상인어당에서는 벽장화로 둘러싸인 승방에서 말차 한 잔과 다식을 대접받았다. 총지종 대표단의 가장 값진 체험의 순간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산문을 나선 대표단은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돌아와 본진들과 합류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김종열 기자



# 제4회 『한국전통문화 대만소개 사업』 참관기 조직적인 신도관리로 교화의 연속성을 확보한 대만 불교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많이 놀랐다. 연령별로 나누어서, 신도회를 조직화 하고 그 신도회 회장은 신도가 맡고, 종단에서는 그 신도를 종단 자체의 교육시스템으로 교육하여 신도 자치적인 신도회 운영을 하고 있었다.

자제공덕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최고 강점인 자원 재활용과 자원봉사 인원 동원의 힘은 신도회 조직에서 나왔다. 자원봉사자 한명이 다섯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교화에 성공한 자원봉사자는 더 높은 단계의 자원봉사자가 되는 시스템이 있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기독교가 하고 있는 포교와 매우 흡사하였다.)

이것은 우리 종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굳이 대만불교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종단에서도 이것은 실행하고 있었다. 신도들에게 신도증을 발급하고, 불자수첩을 제작해서 불공이나 행사 참여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신도수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종단의 행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측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종단의 경인지회 소속 사찰을 대부분 직접 가 보았고, 초보 불자의 입장으로 젊은 층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었다. 우리 종단은 과연 인간으로 따지면 몇 살이나 될까? 고령화 사회와 함께 종단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걸까? 아직 젊다면 젊은 내 주변에서 불자를 찾는 것도, '총지중'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종단의 젊은 피로서, 그리고 초보불자로서 대만불교의 대표인 두 곳에서 신도회의 확립을 통해 현재의 우리 위치를 알고, 거기서부터 신도회의 조직화, 다양한 포교활동과 행사를 더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지않은 않을 것이다.

타이페이 = 주황, 조정아, 조영아 교무  
사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권재한 주임,  
조계종 봉은사 이호상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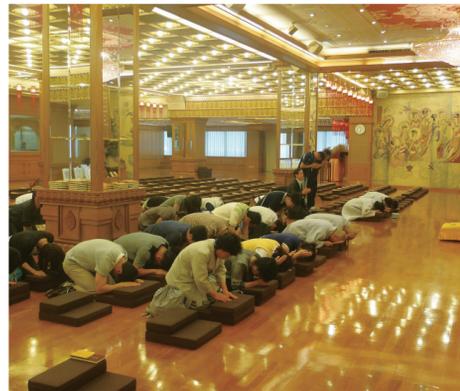
이번 대만 문화교류 사업을 참가하기 전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좋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과연 "우리 불교계는, 그리고 우리 종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대만으로 떠났다.

대만은 불교와 도교가 93%인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정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불광산, 자제공덕회, 법고산, 중대선사 가운데 중대선사를 제외한 3곳을 방문하였다. 우리 종단 같은 경우는 4월 연수를 통해 스승님들께서 이미 불광산과

자제공덕회를 보고 가셨기 때문에 입사 4개월이 조금 넘는 신입종무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배우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3곳 특히 현재 앞서 나가는 불광산과 자제공덕회의 성장 원동력이 알아보고 배우고 싶었다. 특히 지난 봉축행렬에 참여하면서, 종단의 신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되어 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압도하고 있는 대만 불교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에 주력했다.

처음 방문했던 불광산의 타이페이 포교당에서 그들의 신도



##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특집

# 공해대사(空海大師)와 선통사 일본 밀교의 개창조 공해대사의 수행과 교화의 시원지

일본의 역사상 나라에서 대사 칭호를 받은 고승은 모두 24명이다. 진언종 종조 공해대사도 이들 중의 한분이다. 대사는 호칭을 받은 고승들 중에 대사 흥법가 최고라 여겨, 대사하면 흥법대사를 지칭 할 만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숭상 받는 인물이다.

공해대사는 서기 774년 6월 15일 아버지 '사에키 아타이 노타카미'와 어머니 '타마요리 고젠'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사의 고향은 시코쿠의 카가와현 북부에 펼쳐진 사누키 평야지대이다. 바로 지금의 선통사가 들어선 곳이 공해대사가 태어난 곳이다. 아호는 '마오'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다. 어린 시절에도 학문을 좋아하고, 불심이 깊었다고 전한다.

공해대사는 18세 때 고향을 떠나 교토(京都)의 대학에 입학한다. 스님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오카다(岡田) 등에게

상서(尙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을 배웠며 학문의 폭을 넓힌다. 고전을 공부하던 어느 날 젊은 공해대사는 한 스님을 만난다. 그 스님은 '허공장구문지법(虛空藏求聞持法)'을 백만 번 외면 모든 가르침의 참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출가의 뜻을 굳혔다. 20세 때 곤조(勤操:758~827)에게 출가하였고, 24세 때는 《삼교지귀(三教指歸)》라는 책을 저술하여 일찍이 배운 유교와 불교·도교를 비교하고 불교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30세 무렵에는 당나라로 건너가 청룡사의 혜과(惠果)스님을 만났다. 혜과는 그에게 관정(灌頂)을 베풀고 요가 등을 전수한 뒤 밀교를 일본에 전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공해대사는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 여러 가지 서적과 불상, 만다라, 법구, 혜과의 유물 등 밀교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이들 자료는 뒤에 사이초(最澄)와 긴밀한 관계를 갖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일본 천황의 신임을 얻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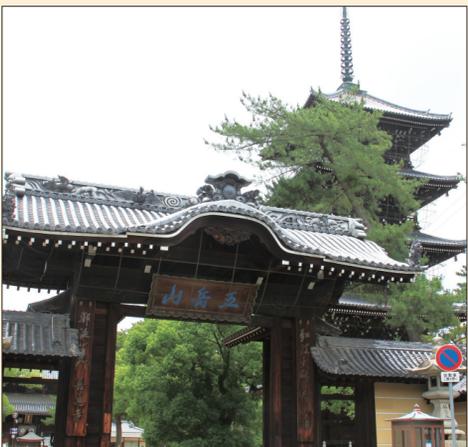
공해대사는 귀국 후 밀교 경전을 널리 전파하고 이른바 동밀(東密) 일파를 개창한다. 고야산(高野山)에 금강봉사(金剛峯寺)를 세우고 교토의 도지사(東寺) 건립에 참여하는 등 진언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62세의 나이로 고야산에서 열반에 들었다.

공해대사가 창종한 진언종은 밀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정신)과 육체(물질)의 합일"을 강조하고 현세에서의 이익을 인정하여 당시 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제자로는 지쓰에(實惠:786~847), 신지(眞濟:800~860), 신(眞雅:801~879) 등을 두었고, 저서로는 삼교지귀, 십주심론(十住心論), 즉신성불의(即身成佛義), 대일경약석(大日經略釋), 금강정경약석(金剛頂經略釋) 등이 전한다.

선통사는 공해대사의 아버지가 보시한 고향의 장원에 당나라 유학 시절 스승인 혜과대사가 주석하던 장안(長安)의 청룡사(靑龍寺)를 모델로 건립한다. 서기 807년 음력 12월에 건립을 시작하여 서기813년 6월 15일에 완공한다. 공해대사는 장원을 보시한 아버지의 호 '요시미치(善通)'를 따 선통사(善通寺)라 칭한다.

선통사는 약 45,000㎡의 부지위에 건립된 대찰이다. 동원과 서원으로 구분되어진 사찰은 금당, 오층 목탑 등이 있는 동원과 공해대사의 탄생지가 있는 서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어영당(御影堂)을 중심으로 한 탄생원(誕生院)은 공해대사가 탄생한 옛 집터에 해당하며 지금도 태어난 장소를 참배할 수 있다.

고토히라 선통사= 김중열 기자



사불(四佛)은 비로자나불의 다른 모습

지난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찰이나 고적지에 남아 있는 사불(四佛)을 소개하면서 태극 양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의 형식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양계만다라에 그려져 있는 사불(四佛)을 한 분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불(四佛)은 태장계만다라의 사불(四佛)과 금강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장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방(東方)의 보당여래(寶幢如來), 남방(南方)의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 서방(西方)의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북방(北方)의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입니다.

금강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동(東)에 아축불(阿闍佛), 남(南)에 보생불(寶生佛), 서(西)에 아미타불(阿彌陀佛), 북(北)에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입니다.

동방의 보당여래는 '발보리심'의 여래

먼저 태장계만다라의 사불(四佛)을 살펴 보겠습니다. 동방(東方)의 보당여래(寶幢如來)는 글자 그대로 '보배 깃발의 여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깃발을 흔들어 적(敵)을 무찌른다'는 의미의 부처입니다. 그 적은 바로 수행에 방해물 일으키는 모든 번뇌망상을 말하는 것이고, 깃발은 석존의 지혜를 뜻합니다. 『대일경소』에 이르기를, '장군이 군대를 통합하는 데는 깃발을 중심으로 한다. 깃발 흔들는 방법 하나로 적을 무찌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존께서는 지혜(智慧)와 원(願)을 당기(幢旗)로 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 군단을 항복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즉 보당여래는 대일여래의 보리심(菩提心)을 깃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심이란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의 준말로써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수행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안팎에 일어나는 번뇌망상, 불선(不善)한 감정들에 꼬달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발보리심(發菩提心)은 내 마음의 조복에서 출발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마군(魔軍)을 조복시키지 못한다면 수행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군의 항복은 지혜의 발현으로써 가능합니다. 지혜는 항상 선정에서 일어납니다. 경계망동하지 않고 몸과 입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생활 속의 참다운 선정입니다. 일상 가운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당여래의 진언을 통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보당여래가 만다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당여래는 태장계만다라의 도상(圖上)에서 중앙의 대일여래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가 동(東)이고 아래가 서방(西方)이므로 동방의 보당여래는 대일여래의 위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여래는 옅은 황색(白黃色)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보당여래의 존형(尊形)은 오른손으로 여원인(與願印)을 결하고 왼손은 가사(袈裟)의 한 쪽 끝을 잡은 채로 왼쪽 가슴 위에 놓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원인은 '부처가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하는 의미의 수인입니다. 이를 시원인(施願印), 만원인(滿願印)이라고도 합니다.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손모양입니다. 여원인은 왼손을 내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져 있는 손모양으로 시무외인과는 반대되는 수인(手印)입니다. 보당여래가 여원인을 하고 있는 것은 대일여래의 제일 첫 번째 심부름꾼으로서 중생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등장한 것에서 그 의미를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4)

사불(四佛) II.



법경 정사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당여래는 오른쪽 어깨와 팔을 옷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편단우견우완(偏袒右肩右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석존의 제자들이 취한 자세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당여래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못다남 람 라호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람 라호 사바하'의 의미입니다. 이 보당여래가 금강계만다라에서는 아축불(阿闍佛)에 해당합니다.

남방의 개부화왕여래는 '수행정진'의 여래

두 번째는 남방(南方)의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입니다. 글자 그대로 '연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여래'입니다. '개부화'는 '꽃망울이 열려서 꽃잎이 활짝 피는 것'을 뜻합니다. 연꽃은 대개 '깨달음'으로 비유합니다. 무명(無明) 속에 덮여 있는 중생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당여래가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다음에 중생들을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개부화왕여래입니다. 이를 『대일경』에서는 '깨달음의 꽃이 피어 금색광명(金色光明)을 방광(放光)하여 일체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커다란 허공(大空)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대공(大空)은 비어있는 커다란 허공이 아니라 깨달음과 지혜로 가득찬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집착과 아집, 번뇌가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개부화왕여래입니다. 즉 보리심(菩提心)의 종자(種子)가 성장 발육하여 완전히 만개(滿開)한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개부화왕여래는 중앙 대일여래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남방입니다. 존형(尊形)은 황색신(黃色身)을 하고 있고 왼손은 가사의 한 쪽 끝을 잡고 배꼽 위에 놓은 모습을 취하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여 가슴 위에 올려 놓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당여래가 여원인이라면, 개부화왕여래는 시무외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마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 공포를 없애주고자 하는 수인(手印)입니다. 중생에게 무의(無畏)를 베풀어 우환과 고난을 해소시킨다는 수인입니다. 손의 모양은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히 위로 뻗치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 높이까지 올린 형태입니다. 이 시무외인과 여원인은 대부분의 부처님이 두루 취하는 수인이라 하여 통인(通印)이라

고도 합니다. 석가모니불 입상(入像)의 경우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여원인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부화왕여래의 옷은 양 어깨에 모두 걸쳐져 있는 통견(通肩)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견은 불제자가 수행할 때 취하는 정식 복장에 해당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들로 하여금 수행에 앞서 제대로 위(威儀)를 갖추도록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원당에 들어선 진언행자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의복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래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못다남 밤 바호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밤 바호 사바하'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부화왕여래께 귀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부화왕여래가 금강계만다라에서는 보생여래(寶生如來)에 해당합니다.

서방의 무량수여래는 '선정·적정'의 여래

세 번째의 여래는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한한 수명을 주시는 여래'입니다. 즉 서방 극락정토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부처님입니다. 바로 아미타여래입니다. 무량광여래(無量光如來)라고도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이루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극락정토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대일경소』에는 '중생이 다함이 없으므로 여래의 대자비(大慈悲)와 방편(方便)도 끝이 없다. 그런 까닭에 무량수(無量壽)라 이름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무량수여래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결과를 중생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자 하는 여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일여래를 대신하여 행한 무량수여래의 공능(功能)입니다. 만다라 도상(圖上)에서 대일여래의 아래쪽, 즉 서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미타여래는 지금도 여전히 서방 극락정토에서 설법하고 계신다'는 『무량수경(無量壽經)』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량수여래의 색신(色身)은 옅은 적색(白赤色)입니다. 옅은 천의 옷을 입고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수인은 크게 9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아미타불 구품인(九品印)이라 합니다. 극락에 왕생하는 중생들의 성품은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라 아미타불이 알맞은 설법을 위해 중생들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눈 뒤 이들 3등급을 다시 3분하여 모두 9등

급으로 나눈 것을 구품(九品)이라 합니다. 각 단계에 맞게 설법해야 모두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품에 따라 아미타불의 수인(手印)을 나누어 놓은 것이 구품정인(九品定印)입니다. 태극 양계만다라의 도상(圖上)에 있는 무량수여래는 구품인(九品印) 가운데 상품상생인(上生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위 단전 아래에 먼저 왼손을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포개 놓은 다음 집게손가락을 구부러서 엄지의 끝을 마주 대어 집게손가락이 서로 닿게 한 손모양입니다. 총지중에서 '람' 자판을 행할 때 취하는 '대삼매인' '선정인'과 비슷한 모양입니다만 손가락 모양에서 조금 다릅니다. '대삼매인'은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끝부분을 서로 맞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위아래로 모두 포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를 달리 '법계정인(法界定印)'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를 모두 '선정인'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무량수여래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못다남 삼 사호 사바하'입니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삼 사호 사바하'라는 뜻입니다. 이 여래는 금강계만다라의 아미타불에 해당합니다.

북방의 천고뇌음여래는 '깨달음'의 여래

네 번째는 북방(北方)의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명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하늘의 북과 천둥소리로 일깨움을 주시는 여래'입니다. 『대일경소』에는 '뜨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청량(淸涼)하고 적정(寂靜)한 곳에 머무른다'고 하였습니다. 뜨거움은 바로 일체의 번뇌를 말하며, 청량한 적정(寂靜)은 곧 지혜를 얻음을 말합니다. 육바라밀에서 선정 다음으로 지혜를 배워야 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일체의 번뇌를 끊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지로 인도하는 분이 천고뇌음여래입니다. 천고(天鼓)는 하늘의 북이요 뇌음(雷音)은 천둥소리로서 바로 부처님의 법음(法音),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하늘의 큰 북이 울리고 천둥소리로 중생들로 하여금 놀라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교화설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자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할 때 악마의 유혹에 잠시 번민하였으나 대지(大地)에 손가락을 대고 지신(地神)을 불러 마군(魔軍)을 조복시키고 결국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뒤에도 마군(魔軍)들이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지 말고 홀로 영원한 적정(寂靜)에 들 것을 권했지만 이마저도 뿌리치고 석존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와같은 장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인(手印)이 바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입니다. 천고뇌음여래의 수인이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래는 석가모니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천고뇌음여래는 금강계만다라에서는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에 해당합니다. 중생을 제도하고 마군을 항복시키는 공능(功能)은 모두 동일합니다. 천고뇌음여래의 진언은 '나막 사만다 못다남 함 하호 사바하'이며,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함 하호 사바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만다라는 그냥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미와 내용을 알고 보면 불보살이 되어 다가옵니다. 만다라를 제대로 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호에서 금강계만다라의 사불(四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경 정사/밀교연구소 연구원/ 법천사 주교



동방의 보당여래는 '발보리심'의 여래



남방의 개부화왕여래는 '수행정진'의 여래



서방의 무량수여래는 '선정·적정'의 여래



북방의 천고뇌음여래는 '깨달음'의 여래

#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난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겁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날마다 좋은날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탁 상 달 (동해중학교 교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잊어서는 안 될 작고 소중한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 작은 생명체로 태어나 부모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성장하여 어엿한 하나의 인격체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 자체가 큰 감사함입니다.

지구상에는 미천하고 빈곤한 국가나, 자유가 없는 국가에 태어나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속 같이 사는 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한 자유 민주국가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준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명심보감에 '몸에 한 가닥 실 오라기라도 걸렸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을 수 있거든 항상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며,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가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애쓰시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애정이 메말라 가는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는 원리를 잘 알면서도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듯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머슴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숲 속의 길을 지날 때 돌연 곰이 나타나 농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농부는 데굴데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슴은 도끼와 쇠갈고리를 치켜들고 곰과 싸

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머슴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머슴과 곰이 싸우는 동안 나무 위에 피신해 있던 농부가 내려와서 곰의 시체를 이리저리 살펴 보더니,

"쇠갈고리로 그렇게 찢러 대면 가죽을 못 쓰게 되지 않나?" 하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농부의 말이 그런 경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소중한 줄 모르는 경우를 하나 더 살펴 보면,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들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조차 모른다." 영리한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바다에는 아주 총명하고 학문이 높은 물고기가 있어,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 그를 찾아가서 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리고 바다에는 물이 많다고 하니 까 물 구경도하고 말아야." 물고기들은 그 총명한 물고

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총명한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들이 물속에 살고 있으며 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마치 인간들이 인간들 속에 살고 있고 그 인간들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에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에 그들의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생활하고 누리는 이 모든 삶은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베풀 때는 조건 없이 베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 우리 사회는 참으로 훈훈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고소하고 시원한 콩국수”



콩의 효능

단백질이 풍부하여 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콩은 단백질이 40%, 탄수화물30%, 지방질이 20%, 기타 무기질 섬유소와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된 영양소의 보고이자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불포화 지방산, 이소플라본, 올리고당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 이외에도 뇌의 활성을 도와 폐경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장 운동을 도와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콩은 특유의 차가운 성질로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에 누적된 독소를 땀이나 대소변으로 배설하는 등 체외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준다.

\*\* 재료 준비 (3인분)

국수 3줌, 흰 콩 1컵, 오이 1/2개, 수박 1쪽, 검은깨 약간, 얼음 1컵, 소금 약간

\*\* 조리 방법

- 1. 하룻밤 불린 콩을 냄비에 물을 붓고 약 3분간 끓인다. 콩을 삶을 때 너무 오래 삶으면 매주 냄새가 나면서 고소한 맛이 탈해진다.
2. 익힌 콩을 씻어 콩 껍질을 벗겨낸 후 믹서에 갈아서 체에 받쳐 콩 물을 비지로부터 걸러 낸다. 믹서에 갈 때는 오랫동안 갈아야 콩 물이 많이 나온다.
3. 콩 물은 소금으로 간하고, 얼음을 담가 시원하게 준비해 둔다. 비지를 건어내고 나중에 동동 뜨는 거품은 건어 낸다.
4.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찬 물을 부어가며 쫄깃하게 삶아 찬 물에 바라바락 씻어 건진다.
5. 준비된 콩 물에 국수를 담고, 오이 채와 수박을 썰어 국수 위에 얹어 내어 놓는다.

\*\* 기타 팁

- 1. 콩 국물은 약간 짠 듯 간을 해야 국수와 얼음을 넣었을 때 간이 맞는다.
2. 콩을 믹서에 갈아 걸쭉한 상태 그대로 국수를 말아 먹어도 괜찮지만, 맑은 콩 물을 내려면 살짝 삶은 콩을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체에 받쳐 걸러 주는 것이 좋다.

편집 정리 = 백지순 위원

충지동의보감

불규칙한 생리(생리불순)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여성건강의 지표인 자궁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생리이며 성인 여성의 경우 28-30일 간격으로 한번에 3-7일 정도 매달 일정하게 생리 주기가 반복됩니다.

건강한 여성이라면 이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지만 내, 외적으로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 월경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양도 많거나 적거나 종잡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생리불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외에도 생리량과 생리시 덩어리가 많은 경우, 색이 탁하고 점도가 높은 경우,

기간이 긴 경우 등을 모두 생리불순에 포함시켜 설명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생리불순의 주요 근본원인을 자궁 및 생식기 기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 비장, 신장의 기능 장애가 생겨서 이들이 생리에 관여하는 충,임맥의 기능부조화를 야기시켜서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여성의 자궁, 부속기관의 장애, 정서적인 불안정, 신체내 장기의 이상, 기타 질병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월경의 양, 주기, 색에 따른 월경불순을 자세히 나누어 보면

- 1) 빠른월경-예정일보다 4-5일 이상 빠르다. 생리량이 적고, 가슴 답답, 요통 동반
2) 늦은월경-월경의 시작이 지연됩니다. 배란장애, 자궁내막이상, 내분비장애가 원인일 가능성 다수.
3) 과소월경-월경지속일이 2일 이하. 자궁난소발육부전 또는 자궁내막손상이 원인
4) 과다월경-월경량이 너무 많고 빈혈, 어지럼증 동반.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리주기의 이상은 자궁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최근 결혼전의 미혼여성들에게서도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

증 등 자궁난소질환의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한의학적으로 볼 때 생리는 매달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평소 건강하던 생리에 비해 2-3개월 이상 생리불순, 생리통이 진행되고 반복될 경우라면 간과하기 보다는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한 생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생활법을 알려드리면

> 생리 전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단 너무 타이트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름철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합니다.

- > 생리중에는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생리중 성생활 금물.
> 적당한 운동이나 요가, 단전호흡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리중에는 가능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합니다.
> 차고 냉한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하지 않습니다.(여름철 에어컨주의)
> 여름철이라도 몸이 냉한 여성들의 경우 찬물샤워나 수영을 주의합니다.
>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의 찬 음식, 냉장상태에서의 과일 등은 피합니다.
> 속옷이나 따뜻한 패 등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성 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저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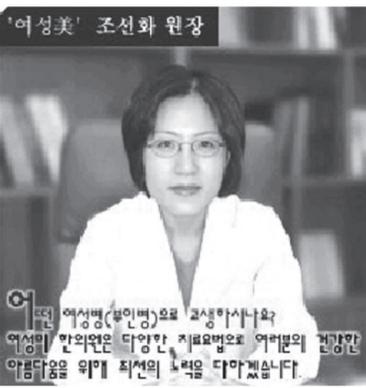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풍경소리

석류 이야기



우리집 마당에 석류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위도가 높아서 열매는 안 열리고  
탐스러운 꽃이 한 달 내내 피었다 지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석류는 과실나무가 아니라  
꽃이나 보는 관상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석류나무에 열매가 세 개나 열렸습니다.  
봄철 내내 이상 난동이 이어지더니  
그게 석류한테는 약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 올해만은 과실나무의 본분을 드러낸 셈이죠.  
때가 안되어 능력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  
옆에 있는 친구를 잘 지켜볼 일입니다.

이재운 / 소설가

무성한 숲만이 온갖 새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굳게 가슴을 닫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스함이 없는 가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듯  
목마르고 험겨울 것입니다.  
작은 실개천 하나가 넓은 초원을 두루 적시듯,  
지치고 힘든 나그네에게  
한 모금의 샘물은 곧 목숨의 근원이 됩니다.  
따스한 마음은 세상의 가슴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가슴을 적시는 샘물



김영희 / 시인

이달의 사진 **중생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거늘..**



일본 시코쿠 선통사 =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제37화

글/그림: 정수일 octagonp@naver.com

흠, 흠...! 이게 어디서 나는 맛있는 냄새나

부처님의 욕심      중생의 욕심

부처님! 맛있는 이떡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찾! 역시 보살님 최고.

지~! 떡 세개가 있으니 똑같이 나눠먹자!

좋아요.

남남! 맛있다.

보살님은 다음생에 무한한 행운을 누리실 것입니다.

잉? 한개가 남았네. 어찌지??

겨우 떡 세개로 무한한 행운을 누리다니!

그렇다면 난 떡 한상자를 공양 할 거야.

두부부는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했습니다.

헉! 도,도독이 들었다.

부처님! 떡 한상자입니다.

이걸 언제 다 먹어?

잘 있어요~!

말하면 지는데...

고기들아! 다 모여라.

우왓! 이게 웬 떡이나!

도독이야!

떡은 내 것이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2장 정계편 p375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 간장 1.8L : 10,000원



밀인사 원당 정사

#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 고찰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적 고찰은 지난 4월 춘계강공에서 발표 된 논문을 총지종보 150호에 이어 152호 학술면에 이어서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그대로 실현되라.(흠)”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를 염송하면 우주법계에 두루한 지혜와 자비가 지송자에게 그대로 실현된다는 의미이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는 곡식중에서 백미가 으뜸이듯이 모든 진언 중에 최고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자재보살의 미묘본심이며 일체의 본보라 하여 관자재보살만이 아니라 모든 불·보살들도 육자대명다라니로부터 출현하시게 되는 것이며 관자재보살을 통해서 제불보살의

지송공덕으로 변재를 얻고, 지혜와 자비를 얻고, 대승보살도의 중심 실천덕목인 육바라밀다를 성취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 역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대신에 육자대명다라니를 지송함으로써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는 관음신앙의 성취의 방편은 육자대명다라니에 있는 것이다.

### III. 결론

『대승장엄보왕경』은 관자재보살의 중생구제의 위신력을 설하면서 육자대명다라니를 함께 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승장엄보왕경』이 관음보살에 밀교적 요소인 육자대명다라니를 결합한 밀교의 관음신앙을 설한 경이라는 것이다.

관음신앙은 중생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관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를 고난과 액난의 두려움에서 해탈케 하여 준다고 믿는 신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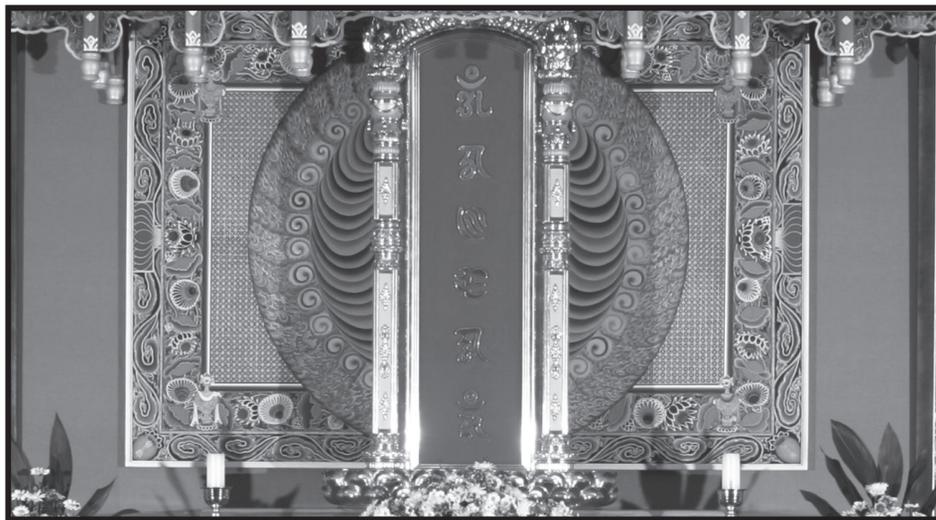
또 대승경전에서 관음보살은 구구난의 대서원을 세운 보살이며 보문시현의 위신력을 지닌 보살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도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으로 관자재보살의 대위신력과 대비원력으로 중생들을 고난과 액난에서 구하고 소원을 성취시켜 해탈하도록 하는 현재적 이익의 성취를 얻을 수 있으며, 육도에 윤회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부구제의 천도와, 명을 마칠 때에 심이여래가 와서 영접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내세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삼마지를 얻어서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을 증득하게 하는 출세간적 성취를 이루게 하여 준다는 것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다.

‘옴마니반메훬’의 유래를 설한 『대승장엄보왕경』은 한국 밀교종단인 총지종에서는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다. ‘옴 마니 반메 훬’을 수행의 대상인 본존으로 삼아 삼밀관행을 통하여 지송함으로써 현세를 정화하고, 본존과 내가 하나임을 체득하는 자내증으로 즉신성불함을 구경으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육자대명다라니는 ‘관세음보살본심미묘진언’으로서 관음보살의 본마음으로 관음보살과 하나인 것이다. 육자대명다라니가 관음보살이고 관음보살이 곧 육자대명다라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하여 해탈을 성취하도록 하는 대승경전의 관음신앙이 밀교의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밀교의 관음신앙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은 고통에서 해탈하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줄기 빛이며 가장 보편적인 신앙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옴 마니 반메 훬’을 지송함으로써 관음보살의 위신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밀관행의 구밀로써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본심을 깨쳐 즉신성불할 수 있는 기도와 수행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본마음이 육자대명다라니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자대명다라니를 총지문이라고 하여 이 육자대명다라니에는 무수한 의미와 무량한 공덕이 함장되어 있음을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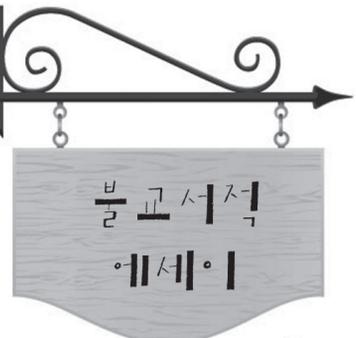
그래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 대신에 육자대명다라니의 서사와 지송을 통해서 불·보살의 본심과 나의 본심이 가지가 되어 해탈을 얻고 업장이 소멸되며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지송자가 머무는 곳 마다 수많은 불·보살과 천룡팔부의 신방들이 와서 지송자를 수호하고 해탈을 얻게 되며, 지송자와 인연 있는 중생들까지도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을 입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의

이어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준제다라니를 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의 상생작용의 진언으로 준제다라니를 설하고 있는 것으로 육자대명다라니와 준제다라니의 공덕이 상승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준제다라니의 진언명은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라고 하며 진언구는 “나무 싹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다나타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라고 표기한다.

준제다라니를 설하고 있는 다른 경전으로는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대준제다라니경』 『칠구지불모소설준제다라니경』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법』 『주오수』 등의 경전에서도 준제다라니가 설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이와 같은 내용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70년대 선방풍경 따뜻하게 묘사 한국불교 최고의 베스트셀러 <선방일기>



조계종에서 내세를 만난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수좌와 선방일 것입니다. 사실 전체 승려수에 비해 수좌 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좌가 빠진 조계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의 수좌와 선방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은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선방 문은 너무 높습니다. 일반인이 선방을 구경하는 것도 힘들지만 선방의 풍속을 아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선방일기>는 선방에 대한 일반인의 갈증을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73년 <신동아>에 연재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선방일기>는 이후 세 번씩이나 단행본으로 재출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선방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있었지만 글의 완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수좌들의 천진한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정스님의 수필과 함께 한국 불교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선승으로서의 투철한 의식과 따뜻한 관찰자의 시선을 가진 지허스님의 <선방일기>는 상원사 선방에서의 동안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일기형식을 빌어 3개월간의 선방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세상도 가난했지만 선방도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밀진 흰죽을 먹고, 반찬이라고는 소금 반 배추 반이라 할 정도의 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늘 배가 고팠고, 음식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추구하지만 아직은 육체에 묶여 있는 중생이다 보니 육체적 결여가 스님들의 정서에 많은 작용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선방을 배경으로 한 이 책도 음식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짠 김치만 먹던 스님들이 보름이 되면 별식을 먹는데 이때는 선방에 조용한 술렁임이 감돕니다. 보름처럼 별식을 하는 날이면 근엄하기만 할 것 같은 스님들은 아이들처럼 들뜬습니다. 거부좌를 틀고 선방에 앉았지만 마음은 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참선으로 코가 예민해진 스님들은 부역에서 올라온 팔 삶는 구수한 밤새에 침을 꿀꺽 삼키기도 하고, 입맛을 다시기도 하면서 온통 찰밥 생각에 들뜬습니다. 단조롭고 엄격한 생활이지만 보름과 같은 특별한 날 보여주는 스님들의 천진한

모습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또 만두 별식을 먹는 날은, 다들 둘러 앉아 만두를 빚는데 이때 어떤 스님들은 장난을 쳤습니다. 만두 속에 짬소금을 넣기도 하고, 매운 고춧가루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만두국을 먹다가 이쪽저쪽에서 “아이고 매워” “아이고 짜”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장난을 쳤던 스님들은 키득거리면서 우스워죽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방스님들에게 이런 아이 같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시간씩 네 번, 하루에 12시간 참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스님들은 안거가 중간 쯤 이르렀을 때는 1주일간 한 시간도 지지 않는 용맹정진을 하면서 수마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선객의 치열함을 엿보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 빠다가 저러오고 신경이 없는 머리카락과 발톱까지도 고통스럽다. 수마는 전신의 땅구멍으로 쳐들어온다. 화두는 여우처럼 놀리면서 달아나라 한다. 입맛은 스태고 속은 쓰리다 못해 아프기까지 한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큰 대(대)자로 누우면 이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만사휴의(萬事休矣).” (81p)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한 스님도 있고 백기를 든 스님도 있습니다. 하루를 못 넘기고 바람을 지고 떠나는 스님도 있지만 끝까지 버틴 스님들은 한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견뎌낸 스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선방스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방일기>를 보면서 선방스님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는 이불이 없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덮고 자야 했으며, 또 어떤 스님들은 이런 고행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한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목언을 하는가 하면, 생식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장좌불와, 결코 놓지 않는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치열한 선방스님들의 수행기를 읽으면서 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선방일기>에는 이 스님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조실 스님이 선방스님들이 만들어낸 미래의 모습입니다. 조실스님은 시주 물을 아껴야 한다거나 공양시간에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잠깐씩 등장하는데 이 짧은 출연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유물론과 유심론에 대해서 사변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반해 조실스님의 범문은 단순했습니다. 아주 쉬운 가르침을 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조실스님의 한 마디는 어떤 철학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조실스님을 보면서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에 가까운 사람 또한 단순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은, 도인은 어린애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방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선 수행을 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순수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은 “수행일기를 읽고 나니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적절하고 고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이상의 말은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유기교가 김은주